

“화합의 대작불사 이루자”

조계종 사태 해결위한 각계 목소리

19일 오후 2시 서울 영화사에서 월주스님이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를 공식 사퇴한 이후 교계에서는 “이래라도 대화합의 대작불사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선문제를 둘러싸고 일파파와 확산파 온 조계종 선거 바람이 엄청난 종단위상 실추로 이어진 현실에

서 근사한적 주도관 싸움을 더 이상 지속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불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을 생각하니 괴롭다”는 한 원로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버리고 가는 마음을 먹으니 종단이 어려워지고 불자들의 마음을 아르게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스님은 “다시 출가정신과 승려의 본분을 각인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원로스님도 “선량한 불자들에게는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탐심이 없어야 세상이 맑아진다”고 말했다. 이틀조차 드러내질 못하는

불교계 재가원로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불자로서 이 일을 입에 담을 자 신도 없고 시시비비를 평가할 만큼 뚜렷한 명분이 서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원로화자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3선문제)이 사라진 만큼, 어느쪽의 스님을 막론하고 보다 큰 이익을 위해

도움말 주신분 원로 관용 서울 백암 문경 탄성스님, 종회의장단, 교구본사연합회 의장단, 정화개혁회의 총보살, 자신을 양보하는 마덕을 보여 아 존경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고집했다. 종회의장단 스님들은 “월주스님의 사퇴로 정화개혁회의의 청사 접수 명분은 없어진 것”이라며 “종원들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 측은 월주스님의 사퇴를 “또 다른 종단 분규의 의도”라며 “정화위원회를 통한 입법 활동과 그에 따른 종단 안정”을 주장하고 있다.

종교개혁회의 총보살, 자신을 양보하는 마덕을 보여 아 존경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고집했다. 종회의장단 스님들은 “월주스님의 사퇴로 정화개혁회의의 청사 접수 명분은 없어진 것”이라며 “종원들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 측은 월주스님의 사퇴를 “또 다른 종단 분규의 의도”라며 “정화위원회를 통한 입법 활동과 그에 따른 종단 안정”을 주장하고 있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다. 회장 박정희회보살은 “성금의 액수보다 환자들의 쾌유를 바라는 회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지혜의 등불 창립배경은 본래 이와는 달랐다. 한 절에 다니는 마음맞는 신도들끼리 한마음이 되어 친목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95년 모임을 결성하고 신도들간의 애경사를 위해 매달 보시금을 적립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급선회했다. 그리고 주위를 눈을 돌렸다. 마음 한번 돌리니 의외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경험담. 그중엔 한 신부전증 환자가 시정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세가 양호해졌고 ‘인생을 담으로 산다’며 흐뭇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돕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경주시내에만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70여명. 이중에 치료비가 고사하고 하루세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2명의 환자에게 그동안 적립해 온 회비중 일부를 전달했다. “그래도 세상엔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며 돌아서는 환자들을 보는 지혜의 등불 회원들은 가슴이 뭉클해져 웃음을 느꼈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a.com)



○월주스님이 19일 서울 영화사에서 총무원장 후보를 공식 사퇴했다. 사퇴회견에는 중앙종회의장 법봉스님과 부의장 명진스님, 총무원과위원장 영일스님 등이 배석했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a.com)

월주스님 후보 공식사퇴

19일 기자회견서 밝혀

월주스님이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를 공식 사퇴했다. 월주스님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영화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종단이 맞은 심각한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명분이 나 단기적 종단 이익에 앞서 한국불교 전체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헌신적인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적 사퇴를 표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종원유리와 총무원장 종단 사태에 대한 입장” 제하의 사퇴성명을 통해 “본인의 출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며 “초기에 3선문제를 종도와 국민이 함께 납득할도록 실효해 내지 못했던

것은 능력의 한계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월주스님은 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총무원장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중무행정 파탄과 폭력행위는 종단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월주스님은 기자회견과 일문일답을 통해 “중앙종회의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종단 사태

의 수습을 위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해 그들의 애중심과 종원종법 수호 의지를 믿고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정화개혁회의의 상임의장 월탄스님에 대해서는 “내가 후보를 사퇴함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있을 줄 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19일 총무원장 사 총동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었으며 이는 바드 없다”고 밝혔다. 일연태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20일 임기 만료

조계종 총무원이 20일로 월주스님의 임기가 마감됨에 따라 총무원장과 총무원장 권한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18일 무산...재연기

18일 해인사에서 치를 예정이었던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또 연기됐다. 해인사측이 종단 내분상황에서 선거 장소를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선거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은스님은 18일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 연기공고” 제하의 회견문을 통해 “해인사측의 장소제공 불허와 현 총무원장, 종회의장, 정화개혁회의의 의장, 총무원장 후보 지선스님 등이 선거연기를 요청해와 선거일을 재연기한다”면서 “재선거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결정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a.com)

국난극복범회 관련

대통령, 불교계에 감사

김대중대통령은 불교계가 국난극복을 위해 전국 순회 범회법회를 열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박상규부총재(연동회장)는 16일 태고종 선암사 국난극복범회법회에서 기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부총재는 이와 함께 김대통령이 불교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위영란 기자(yryu@buddhapa.com)

선암사 국난극복범회

기사 2면·이모저모 5면

제8차 국난극복 범회 회향대법회

민족화합 3천배 정진

28·29일 목포 보현정사...인왕경 사경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범종종이 주관하는 전국순회 제8차 국난극복 범회법회가 지역화합을 발원하는 철야 3천배정진으로 2일간 열립니다. 나라가 처해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이번 법회는 4월부터 열린 국난극복 범회법회의의 회향법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법회는 종단과 지역을 초월해서 서울 경기 충청 영·호남권에서 지역 기관장 및 불자 4천여명이 동참해 정진으로 지역화합과 민족화합을 통해 나라의 어려움 극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회향법회에서는 <호국인왕반아비리밀경> 상·하권(8종)을 중합 전 대종이 사경해 부처님전에 공양올리는 대대적인 사경법회를 열립니다. <호국인왕반아비리밀경>은 나라를 보호하는 불경이라 하여 조상대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 사경공덕으로 국민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굳게 믿습니다. 목포 보현정사에서 봉행되는 국난극복 회향대법회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3천배 철야정진: 1998년 11월28일(토) 오후9시~29일 오전3시 회향대법회: 11월29일(일) 오후2시 ◎ 장소: 목포 보현정사(0632172-1730) ※현장생중계: 불교방송(101.9MHz) 20일 오후2~3시 ※복합중계: 불교TV(ch32) 12월7일 오전11~12시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재단법인 범종종 후원: 국민회의연동회·자인연불자회·한나라당불자회·군승단 경승단·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신문사

종헌 중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소집

승단의 제 일의는 화합일진대, 작금의 종단 사태에 모든 종도는 참담한 심정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종권에 탐착한 일부 무리가 폭력적으로 총무원 청사를 무단 점거하더니 종헌 중법을 부정하고 중무행정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폭력을 자행하여 불조의 자비 광명을 가리니 이는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남이요, 전 종도에 대한 폭거로다. 청정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세간을 연민히 여겨 대비원력으로 구제하여야 할승가가 본분사를 망각하고 종권에 탐착하는 중생상을 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전종도의 뜻을 모아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함으로써, 폭력 행위를 자행하여 종단을 나락에 떨어뜨린 소위 “정화개혁회의”를 심판하고, 94년 개혁불사에서 전 종도의 합의로 만들어진 종헌중법을 수호하며, 종단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니 불조와 원로 대덕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 무릇 모든 종도는 전국승려대회에 동참하여 邪法을 폐하고 正法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라.

□ 일시 : 불기 2542년 11월 27일(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종헌 중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대회장 탄 성

□ 문의 : 전화 (02)732-9342, 팩스(02)720-3302